

잠실7동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 관련 알림

송파구 잠실7동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보도 내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잠실7동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현장 검증 관련

- 6월 10일 법원에서 현장 검증을 실시한 잠실7동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투표마감 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수하여 법적으로 보관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.
- 투표용지 보관상자는 구선관위가 선거일 전일까지 동에 투표용지를 송부할 때 이를 담은 상자이고, 통상적으로 투표마감 후에 투표소를 정리할 때 자체 폐기하고 있습니다.
- 잠실7동제2투표소 투표용지 보관상자의 경우, 6월 5일 투표함이 개표소로 이송된 이후 잠실7동주민센터에서 상자를 회수하여 보관하다가 6월 9일 송파구선관위로 소형기표대 등 회수물품과 함께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.
- 당초 송파구선관위는 6월 9일 각 동에서 회수한 소형기표대 등을 폐기업체에게 인계할 예정이었던 바, 해당일자에 방문한 업체에게 폐기물품을 전달할 때 해당 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 또한 함께 인계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.

- 6월 8일 김정철 서울시장선거 후보자가 신청한 증거보전 대상을 송파구선관위가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기에(결정문은 폐기업체가 다녀간 이후 송파구선관위에 팩스 송달됨.) 상자를 보존해야한다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.